즉시 배포용: 2016년 2월 11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10대의 HIV 치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다
이 제안은 HIV 치료 장벽을 없애고 감염을 예방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법안은 2020년 말까지 뉴욕에서 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모색 중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본 입법심의회에 소개할 제안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 사항은 HIV에 감염된 10대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주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료 치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병 치료의 경우 수십 년 전에 예외 명단이 마련되었지만, HIV는 적절한 치료가 부족하고 자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관계로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의료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해졌고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나아가, 치료 실패 시 심각한 건강 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HIV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감염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치료를 늘리기 위해 HIV를 예외 명단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HIV 감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오명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발생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으로 HIV에 감염된 10대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염병을 종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계층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이 올해 이 제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동참해주기를 간청합니다."

HIV는 초기에 사형선고로 여길만큼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치료도 받기 힘들었고, 비용도 엄청났고 힘들었습니다. 더우기, HIV 치료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건강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현재 HIV는 사형선고가 아닙니다. 치료도 간단해졌고, 사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치료에 실패할 경우 질병 진행, 다른 기관으로 바이러스 이동 증가를 포함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2013년, 뉴욕주에서 13 – 19세 중에서 새롭게 HIV 진단 판정을 받은 건수가 141건이나 되었고, 이 연령대에서 바이러스를 달고 사는 사람이 951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변경사항으로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청소년들 중 스프레션(suppression) 상태가 낮은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를 억제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치료를 받는 일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2013년, 뉴욕주 평균 63%와 비교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13 – 24세 청소년들 중 48%만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된 입법사항에는 HIV 예방 서비스를 10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Pre-Exposure Prophylaxis 또는 줄여서 PrEP와 같이 매우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면서 중요해졌습니다. PrEP는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루 1정 알약입니다. 고위험 성행위를 하고 자주 STD 감염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현재 부모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PrEP가 중요한 예방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최근에 제정된 주 법규를 보완하고 HIV 진단을 받을 경우 겪게 되는 치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HIV에 감염된 10대들은 부모에게 성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치료를 받고 HIV 예방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부모와 소원해지는 10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센터 관장 겸 Great Neck의 Northwell Health에서 소아과 HIV 의사인 David Rosentha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IV에 걸린 14세 아이들 만날 때는 참 난감합니다. 환자를 테스트할 수 있고 환자에게 HIV에 걸렸지만 제대로 치료해줄 약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치료해줄 수 없습니다. HIV 치료는 다른 성병들처럼 10대들에게 똑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임상소아과 교수 겸 Bronx 소재 Montefiore Medical Center 내 아동병원의 청소년 AIDS 프로그램 디렉터인 Donna Futterm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아과의사이자 Montefiore Medical Center의 청소년 AIDS 프로그램(1989년부터 650여명의 HIV 양성 청소년 환자들을 치료해온 프로그램) 디렉터로써 청소년들이 HIV 치료 및 예방 약품을 받을 때 동의를 없애는 법의 중단을 요구하는 식으로 Cuomo 주지사와 DOH가 보여준 전향적인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STD와 같은 다른 성병 치료에도 동의할 수 있으며, 피임 및 HIV 치료 서비스 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2020년말까지 AIDS를 종식시키겠다는 주지사의 목표에 발맞춰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4년 8월 이래 새로운 모자간 HIV 전파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에이즈 전염병 돌발 이래 12개월 이상 새 사례가 없는 최초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는 PrEP 이용성을 늘리기 활동에서 미국을 선도해나가는 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이래 Medicaid 등록자 중에서 PrEP 사용이 4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가을, 주지사는 HIV/AIDS 활동을 위해 신규 지원금으로 몇 년 간 2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금액은 뉴욕주가 현재 이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지원금 25억달러 외의 다른 금액입니다.

뉴욕주가 HIV/AIDS 활동에 사용하는 수십 억 달러 외에도 뉴욕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뉴욕주가 2020년까지 AIDS를 종식시키기 위해 또 다른 금융 및 계획에 따른 약속을 할 것입니다:

1. 모든 뉴욕주민들이 HIV 테스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HIV 감염율이 높은 사람에게 PrEP 사용을 계속 확대한다;
3.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은 HIV 감염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치료 시스템 작업을 한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